



서촌산책 & 상영회 토크

2022년 9월 24일(토)

1부 오후 3시 민주언론시민연합 2부 오후 5시 20분 노무현시민센터

민주언론 시민의 힘으로

민언련은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언론개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모여야 언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세요.

앞으로도 민언련 회원, 그리고 민주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 언론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 후원하기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의 날

서촌산책 & '아치의 노래, 정태춘' 상영회 토크

1부 서촌 산책	15:30	민언련 집결 ★ 손수건 증정
	15:30~15:40	채영길 공동대표 인사 민언련 활동 및 사무처 활동가 소개
	15:40~16:00	민언련 옥상 '서촌에서 북촌까지' 해설 (신하림 뉴스타파 전문위원)
	16:00~17:30	'서촌산책' 수성동 계곡(기념촬영) → 경복궁 → 국립현대미술관(기념촬영) → 정독도서관 → 노무현시민센터
2부 <아치의 노래, 정태춘> 상영 및 토크	17:30~17:40	노무현시민센터 소개(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17:40~17:55	신청자·좌석 확인 및 상영관 입장 : 다목적홀
	17:55~18:00	이진순 상임공동대표 인사
	18:00~19:53	<아치의 노래, 정태춘> 상영
	19:53~20:00	휴식
	20:00~20:50	토크 : 주인공 정태춘·박은옥, 고영재 감독 * 사회 : 김시창 이사
	20:50~21:00	마무리 인사 및 기념촬영

민언련 활동 소개

민언련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시민의 미디어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독자권익위원회, 시청자권익위원회, 이용자권익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미디어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온라인 혐오차별 콘텐츠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모니터 상시화 등 온라인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혐오·차별 콘텐츠에 대한 감시와 대응에도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3)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회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5.18 광주순례 행사, 하반기 회원 초청 특별행사와 같이 회원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12월 창립기념식, 좋은보도상 시상식, 연말 송년회에도 회원들의 목소리와 참여를 기대합니다.

4) 의사결정 구조와 실무집행 구조의 효율적 연계를 꾀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위원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해 정책·제안 단위와 실무 집행 단위의 간극을 극복하고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5) 대선과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미디어 감시의 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민언련은 1992년 총선과 대선을 시작으로 2022년도에도 선거보도 모니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 보도와 기사 유통에서 나타난 문제들의 시정을 언론사 및 플랫폼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참여와 개선안에 대한 협의 및 협약 등을 촉구했습니다.

6) 시민 미디어리터러시는 민언련에서!

민언련은 1991년 언론학교와 1992년 대학언론강좌를 열어 시민언론교육을 개척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공유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실탐사그룹 ‘설록’과 ‘대학언론강좌

탐사보도 심화 과정'을 공동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시민단체 활동가·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미디어리터러시 강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언련 소개

이사회

의장 이진순

이사 강성남 강수곤 계획수
김경실 김서중 김수정
김시연 김시창 김진혁
박석운 신미희 안진걸
이용성 전영일 정수경
정연우 채영길 최영목
최은경

감사

강은하(회계) 임자운(업무)

공동대표

이진순 채영길

고문

김태진 박우정 신흥범 이명순
이범수 임재경 정동익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순

위원 김봄빛나래 김준혁
신미희 이용성 정수경
조영수 채영길

정책위원회

위원장 정수경

위원 김금녀 김수정 김지미
송경재 신미희 유승현
이명재 이은경 이진순
이홍천 채영길 최은경
최재원

정책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성

위원 강성남 김서중 문현숙
박석운 신태섭 엄주웅
정연우

미디어위원회

위원장 김진혁

위원 김경실 김동현 김윤상
김은남 김정환 김현식
박대용 안병훈 신미희
유지연 이계정 정은주

사무처

사무처장 신미희

협동사무처장 조영수

참여소통팀

고은지 서수정

⇒ 회원·시민참여 및 소통, 재정,
인사관리, 총무·회계 등

미디어팀

공시형 박채린 서혜경 조선희

⇒ 미디어 모니터링, 현안대응 등

교육콘텐츠팀

김진영(팀장) 김봄빛나래

⇒ 미디어교육

교육콘텐츠 제작 등



서촌산책

‘서촌에서 북촌까지’ <역사 산책>

해설 신학림 민언련 회원 / 뉴스타파 전문위원

‘서촌에서 북촌까지’

중앙집권 역사를 통해 지역분권을 본다

〈취지와 목적〉

조선왕조 500년의 정궁(正宮)인 경복궁과 청와대의 서쪽 인왕산 자락, 즉 서촌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을 계기로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으로 자리 잡은 서촌 지역에서 출발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념관인 <노무현열린시민센터>(9월 23일 개관)가 자리 잡은 창덕궁의 서쪽 지역인 원서동까지 민언련 회원들이 함께 답사하며 오늘의 정치와 언론을 다시 돌아보고 내일을 생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산, 숲, 나무의 순서로...

1) 800년 이상 이어져 온 한양(서울) 중심 집권체제

(1) 모든 것을 서울(한양)이 빨아들이는 중앙집권 정치와 역사:

* 참고: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Gregory Henderson; 주한미국 대사관 문정관;

(2) ‘서울은 관습 헌법상 수도’라는 궤변:

(3) 마음과 생활 속에 뿌리 깊은 ‘서울 중심주의’:

* 문제: 기차의 호실(예: KTX 1호차...18호차) 번호는 어떻게 정해질까?

2) 고려와 조선 왕조의 공통점과 차이점

- (1) 공통점: 강력한 중앙집권제도
- (2) 차이점: 고려가 지역 호족과 중앙의 집권 세력(왕건)이 연합한 '재벌형 체제'라면, 조선은 친 중국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관료(사대부)들이 중심이 된 '중소기업 중심 체제'에 비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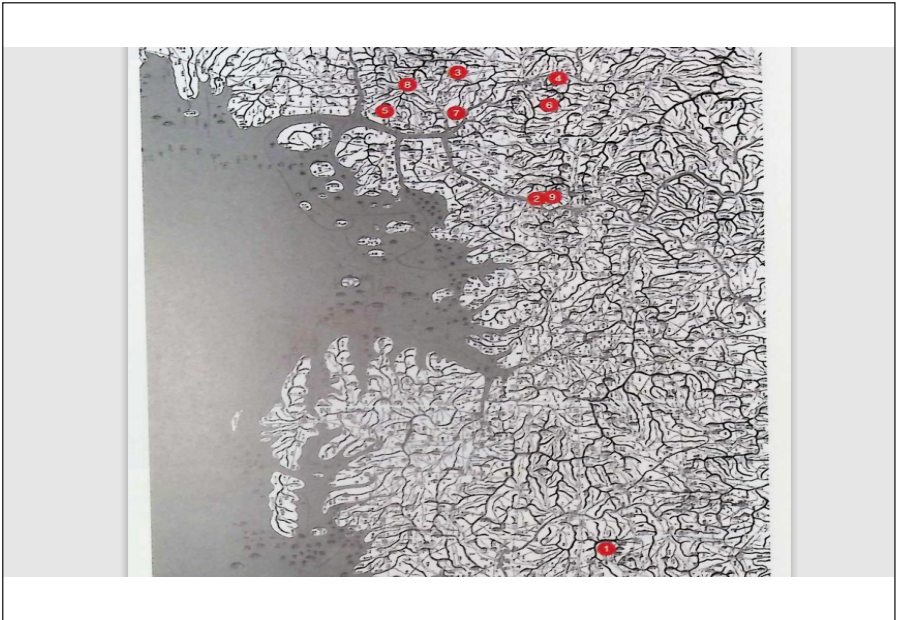
3) 오늘의 지방자치(지역분권)의 현실: 여전히 중앙(서울)정부 중심

- (1) 행정 서비스: 중앙정부(20%) vs 지방정부(80%)
- (2) 정부 예산 배정: 중앙정부(80%) vs 지방정부(20%)

태조(이성계)의 천도 후보지와 한양: 숲

〈천도 후보지〉

- (1) 계룡산(鷄龍山): 충남 계룡시 신도안(新都內)
- (2) 무악(母岳): 연세대 뒷산 안산(鞍山)
- (3) 불일사(佛日寺): 황해도 판문군; 개성의 일부;
- (4) 선점(鎭站): 선고개; 파주시 적성 북쪽;
- (5) 부소산(扶蘇山): 개성의 남서쪽; 태조 왕건의 조상 거주지;
- (6) 광실원(廣實院): 경기도 파주 적성(積城)면;
- (7) 도라산(都羅山):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156m의 산;
- (8) 송경(松京): 경기도 개성 송악산 일대;
- (9) 한양(漢陽): 고려 후기 남경;



한양 천도와 경복궁의 입지 조건: 정도전과 무학대사

〈내사산(內四山)과 외사산(外四山)〉

- (1) 백악산(북악산):
- (2) 낙산(타락산):
- (3) 인왕산:
- (4) 남산(목멱산):
- (5) 삼각산(북한산)
- (6) 아차산:
- (7) 관악산:
- (8) 덕양산(행주산성):

〈한양 도성도〉



〈서촌과 북촌, 그리고 남촌〉

- 1) 서촌(경복궁)과 북촌의 경계: 감사원-정독도서관-송현(松峴) 마루
- 2) 청계천: 북쪽과 남쪽에 시장과 거주지 형성
- 3) 서촌(경복궁의 서쪽)의 변화
 - (1) 조선 초기: 이 씨 왕족들의 터전;
 - (2)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세거지; 서인 학문과 예술의 발상지;
 - (3) 조선 후기: 중인들의 문예 운동이 꽃핀 곳;
 - (4) 일제 강점기: 친일 매국노(이완용/윤덕영)의 아방궁
- 4) 북촌: 조선시대 고위 관료들의 집단 거주지
- 5) 남촌: 벼슬과 멀어진 사람들의 거주지; 딸각발이; 현재 한옥마을

〈걸으며 만날 곳〉

- 1) 출발지: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실/구 이완용 아방궁(대저택) 경내
- 2) 서촌:
 - (1) 자수궁(慈壽宮)/순화원(터): 비구니 승방; 5천여 명의 여승(비구니)을 수용
 - (2) (필운대로) 이여성 거주지-엘리스 현 원적지
 - (3) 화가 박노수 가옥(송석원 각자): 시종원경 윤덕영과 벽수산장
 - (4) 운동주 하숙집: 누상동 9번지
 - (5) 인왕산 수성동 계곡/안평대군과 비해당 터/겸재 정선 진경산수화
 - (6) 사직단(황학정/단군성전):

* 문제: 단군성전은 왜 남산에서 사직단 위쪽으로 밀려났을까?

3) 경복궁과 근처

- (1) 국립고궁박물관/영추문(迎秋門)/신무문(神武門)
- (2) 근정전/교태전/내불당과 훈민정음 그리고 신미대사
- (3) 광화문/해태상/현대역사박물관/주한미국대사관/이마빌딩/정도전 집터
- (4) 동십자각/건춘문(建春門)

4) 경복궁과 북촌의 경계

- (1) 국립현대미술관(구 국군지구병원)
- (2) 정독도서관: 장원서 터/성삼문 집터/김옥균(호 古筠) 집터
- (3) 경기고(최초 중등교육발상지)/서울교육박물관(하/김관사와 유관순)
- (4) 겸재인왕제색도비(謙齋仁王霽色圖碑)

5) 북촌

- (1) 윤보선 가옥과 이상한 감시 건물
- (2) 백인제 가옥과 손병희 선생 집터
- (3) 헌법재판소와 600년 백송 나무
- (4) 윤현궁과 별채(김승현 가옥)
- (5) 김성수 가옥(대동세무고등학교 정문 입구)
- (6) 화가 춘곡(春谷) 고희동(高羲東) 가옥:
- (7) 창덕궁: 일본인들도 감탄하는 곳
- (8) 도착지: 노무현열린시민센터

〈걸어가는 길과 순서〉

(출발) 민주언론시민연합(16시) ▶ 자수궁(터) ▶ (필운대로) 이여성 거주지/앨리스 현 원적지
 ▶ (수성동 계곡 입구) 박노수 가옥 윤동주 하숙집 ▶ 수성동 계곡/안평대군과 비해당 터
 사직단(황학정/단군성전) ▶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영추문(迎秋門)/신무문(神武門) ▶ 광화문과
 해태상 ▶ 동십자각 ▶ 건춘문(建春門) ▶ 국립현대미술관 ▶ 정독도서관/장원서 터/성삼문
 집터/김육군 집터 ▶ 겸재인왕제색도비(謙齋仁王霽色圖碑)/경기고(최초 중등 교육기관)
 이전비/서울교육박물관(김란사와 유관순) ▶ (북촌) 윤보선 집터와 감시건물 백인제 가옥과
 손병희 선생 집터 ▶ 헌법재판소와 600년 백송 나무 ▶ (안국역) ▶ 운현궁과 별채(김승현 가옥)
 김성수 가옥(대동세무고등학교 정문) ▶ 화가 춘곡 고희동 가옥 ▶ 노무현열린시민센터(도착: 17시
 30분)

〈장소와 관련 인물〉

- 1) 태조 이성계(李成桂: 1335-1408)
- 2) 무학(舞鶴) 대사(1327-1405): 태종의 왕사
 - * 이성계와의 만남: 석왕사(釋王寺: 함남 안변)
 - * 계유정난을 피해(?) 회암사(檜巖寺: 경기도 양주)로
- 3) 태종 이방원(李芳遠: 1367-1422)과 계유정난(癸酉靖難)
 1453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일으킨 사건
- 4) 정도전(鄭道傳: 1342-1398)과 집터(이마/利馬빌딩)
- 5) 정종(定宗) 이광원(李光遠: 1357-1419)과 인덕궁(仁德宮)
- 6) 이방번(李芳蕃) 무안군(撫安君)과 자수궁(慈壽宮) 터

7)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청지(李清之: 1418-1453)와 비해당(匪懈堂)

8)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1396-1486): 방배동(方背洞)/연주암(戀主庵)

9) 광해군(光海君: 1575-1641; 본명 이혼/李瑱)과 세 궁궐:

(1) 경덕궁(慶德宮: 慶熙宮):

이복동생 정원군(1580-1619: 인조/능양군의 아버지)의 집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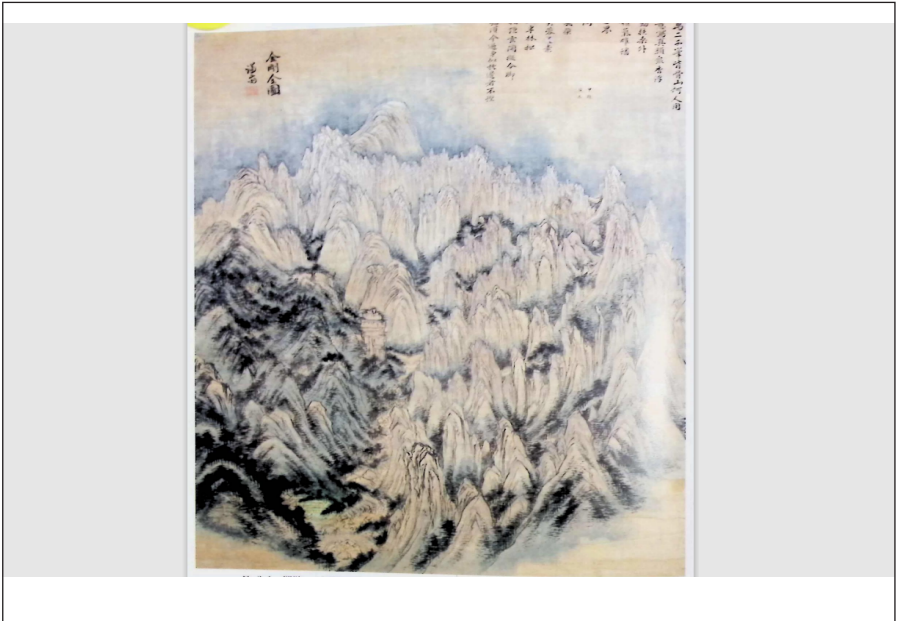
(2) 인경궁(仁慶宮): 실전(失傳);

(3) 자수궁(慈壽宮): 비구니 승방; 한 때 5천여 명의 여승(비구니)을 수용;

10)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과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진경산수화의 원조가 76세 때인 1751년(영조 27년) 윤달 5월 하순에 그림; 이윗에 살던 절친 이 병언이 5월 29일 죽기 며칠 전에 그린 것으로 추정; 근거는 당시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윤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 동안 지루한 장맛비가 내리다가 25일 오후에 완전히 갬; 그린 장소는 정독 도서관이나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추정되는데 전자가 유력한 것으로 추정됨;

*** 참고: 정선의 금강전도(金剛全圖) 삼원(三遠)법과 피카소의 원근법**



11) 이완용(李完用: 1858-1926)과 집터: 옥인동 2, 18, 19번지 도합 3,700평;



〈이완용과 차남 이항구 소유의 옥인동 토지〉

(조선총독부가 1917년 작성한 경성부 관내 지적목록 중 일부)

지번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종	비고
1-1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2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3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4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5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6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7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8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9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10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11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12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13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14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15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16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17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18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19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20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21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22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23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24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25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26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27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28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29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30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31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32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33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34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35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36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37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38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39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40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41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42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43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44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45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46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47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48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49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50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51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52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53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54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55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56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57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58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59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60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61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62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63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64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65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66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67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68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69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70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71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72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73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74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75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76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77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78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79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80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81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82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83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84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85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86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87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88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89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90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91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92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93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94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95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96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97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98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99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100	1,000	이완용	옥인동	토지	

12) 윤덕영(尹德榮: 1873-1940)과 벽수산장(壁樹山莊)

토지 16,628평(경성부 관내 지적목록: 1917년); 벽수산장은 건평만 600여 평; 이후 토지 계속 매입해 1927년 옥인동 일대 소유토지만 19,467.8평으로 당시 옥인동 전체면적(36,361.8평)의 54%를 차지; 윤덕영 동생 윤택영(尹澤榮: 1876-1935)이 순종의 장인; 해풍부원군(海豐府院君);



14)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 필운대(弼雲臺) 주인공

* 장인: 권율(權慄: 1537-1599) 총사령관

* 후손: 이회영·이시영 6형제와 독립운동: 세계 독립운동사에 유례 찾기 어려워!

15) 동농(東農) 김가진(金嘉鎭: 1846-1922): 독립운동가; 대한제국 법무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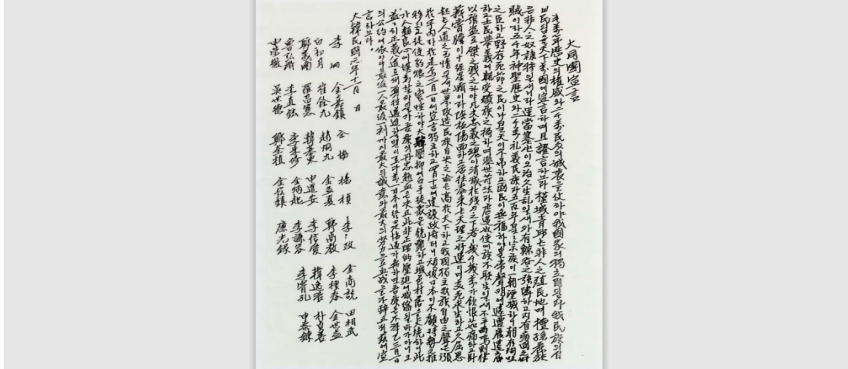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12세손; 장동 김 씨; 노블리스 오블리주; 김가진 선생의 유해는 중국 상하이 <만국공묘>, 아들 김의한(金毅漢: 1900-1951)은 평양 <애국열사릉>에, 며느리 정정화(鄭靖和: 1900-1991) 여사와 손자 김자동(金滋東: 1928-2022) 선생은 대한민국의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다.

<동농김가진선생지묘>



〈대동단 선언문〉

김가진의 상하이 망명 직후인 ‘대한민국 원년(1919년) 11월’에 발표된 ‘대동단 선언문’
 고틀머리에 연호를 ‘대한민국 원년’이라 적었고, 단원 명부 첫머리에 ‘이강(의친왕)’,
 ‘김가진’ 등의 이름이 보인다.



16) 여성(如星) 이명건(李命鍵: 1901-?)과 동생 이쾌대(李快大: 1913-1965):

경북 칠곡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민족의 역사와 미술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민족주의자로 활동하다 월북하는 바람에 잊혀진 형제;

- * 약수(若水) 김두전(金斗全): 1890-1964;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 * 약산(若山) 김원봉(金元鳳): 1898-1958; 무장 투쟁조직 의열단/조선의용대 조직 창설 주도;
 - * 약수(若水)/약산(若山)/여성(如星): 물과 같이/산과 같이/별과 같이;
- 김원봉의 고모부이자 의열단 단장이었던 황상규(黃尙奎: 1891-1931; 1918년
 ‘무오독립선언서’ 발표의 주역 중 한 사람)가 해당 세 친구의 민족해방운동을 벌이기 위해
 중국으로 떠나기 전 조국 산천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붙여준 호;

17) 엘리스 현(1903-1955?): 원적지 옥인동 92번지;

독립운동가 현순(玄樞: 1880-1968) 목사의 딸; 재미 소설가 피터 현(1906-1993)의 누나;



〈사진〉 현순 목사가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한 직후의 모습.
앞줄 오른쪽부터 현순, 도산 안창호, 해공 신익희.

〈참고자료〉

1) 조선왕조 통치의 두 기둥: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1) 종묘(宗廟): 조선 역대 왕들과 충신들의 위패를 모신 곳;

(2) 사직(社稷): 토지와 곡식을 관장하는 상징과 제단(社壇/稷壇);

2) 사대문(四大門)과 보신각(普信閣)

(1) 흥인지문(興仁之門): 동대문; 목(木);

(2) 돈의문(敦義門): 서대문; 금(金);

(3) 숭례문(崇禮門): 남대문; 화(火);

(4) 숙정문(肅靖門): 원래는 숙청문(肅淸門); 북대문; 수(水);

* 홍지문(弘智門): 숙종 때 한양도성을 보완한 탕춘대(蕩春臺)성의 성문;

(5) 보신각(普信閣): 토(土); 중앙;

3) 사소문(四小門)

- (1) 홍화문(弘化門): 후에 혜화문(惠化門); 경복궁의 동북쪽; 동소문;
- (2) 광희문(光熙門): 속칭 수구문(水口門); 경복궁의 동남쪽;
- (3) 소덕문(昭德門): 소의문(昭義門); 속칭 서소문; 경복궁의 남서쪽;
- (4) 창의문(彰義門): 자하문(紫霞門); 경복궁의 북서쪽;



상영 및 토크

아침이 노래
그림대 줄



시대의 거리에서
희망도 절망도 노래가 됐다

스스로 장르가 된 뮤지션

아치의 노래, 그것은 노래



감독

고영재

<위낭소리>,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우리학교>

제작



출연

정태춘·박은옥

대표곡
<떠나가는 배>, <춧불>,
<92년 장마, 종로에서>,
<아치의 노래>, <시인의 마을> 등

10대 가수상, 가요 사전심의 철폐운동 그리고
음악시장을 홀연히 떠나기까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노랫말과
서정적인 음율로 시대와 함께한 뮤지션 데뷔 40주년,
우리가 몰랐던 정태춘의 음악과 삶을 만나다!

28곡의 대표작으로 스토리텔링한 음유시인 정태춘의 40년 음악인생. 풍부한 아카이빙과 생생한 공연실황 담은 웰메이드 음악 다큐멘터리. 시대의 사유와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울림의 영화 <아치의 노래, 정태춘>은 서정성과 사회성을 모두 아우르는 음악으로 한국적 포크의 전설이 된 정태춘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음악 다큐멘터리다.

1978년 '시인의 마을', '촛불'로 데뷔한 정태춘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시적인 노랫말과 서정적인 음율로 'MBC 10대 가수상 신인상'을 받는 등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촉망받는 싱어송라이터였다. 하지만 이후 표현의 자유를 위해 가요 사전심의 철폐운동에 앞장서며 불의에 저항하는 등, 8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길목마다 시대정신이 깃든 노래들로 시대와 호흡했다.

<아치의 노래, 정태춘>은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28곡의 대표작과 함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정태춘의 음악과 삶을 보여주며 기성세대에는 반가움, 청년세대에는 신선함을 선사한다. 한국적 포크부터 랩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락 넘버까지 시대별 대표곡들과 세대별 팬들의 특별한 사연을 통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정태춘 음악의 현재성을 목도할 수 있다. 또한 정태춘의 음악적 동지이자 인생의 동반자 박은옥의 보이지 않는 기여도 놓치지 않았다. 박은옥은 섬세한 보컬리스트로서 정태춘의 음악을 시작부터 도약, 성장 그리고 완성이 함께하며 시대를 건너온 벗이다.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빚어내는 하모니는 깊은 감동을 안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시대의 불의에 저항한 길 위의 뮤지션 정태춘의 음악인생을 담은 <아치의 노래, 정태춘>에는 환란의 시대에 형형하게 빛났던 정태춘의 이념, 나아가 신념을 만날 수 있다. 정태춘의 뜨거웠던 길 위의 투쟁은 이제 멈췄지만 영화를 통해 전해지는 그의 생애 속 시대정신은 지금도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정태춘은 청계피복노조 일일차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투쟁, 고문 및 정치폭력 희생

자를 위한 모금공연,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 등 시대별·사건별로 힘 없는 민중들과 노래로 함께하는 목소리가 되어주었다. 특히 가요 사전심의 철폐운동을 함께했던 노무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고, 천정배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된 참여정권에서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은 정태춘에게 있어 서정의 근원이었던 고향 마을에 대한 뜨거운 헌신이자, 수백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한 실천적 행동이었다.

정태춘은 누구보다 뜨겁게 길 위에서 시대의 불의에 저항했지만 혁명의 시대는 저물고 한국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래한 현실을 한탄했다. 정태춘은 크게 절망하고 노래 대신 시나 붓글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의 이념은 과거에 비해 무뎌지기보다 오히려 더 예리하다. 영화의 말미에서 정태춘이 밝힌, 지금의 그가 꿈꾸는 미래사회는 문명이 고도화된 산업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원시공동체다. 인간이 발명한 ‘금용’이라는 발명품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잔인하게 약자를 짓밟고, 잉여 생산물로 인한 과잉 소비가 초래한 빈부격차와 환경오염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미래를 거부하고 문명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는 그의 소망은 ‘이 시대의 이상주의자’들에게 새로운 상상력에 대한 영감을 자극한다.

2022 민언련
시민미디어리터러시3차

무료
강좌

신청하기



시민이 검증한다

뉴스를 넘어
미디어의 책임을 묻다



일시 2022/10/11(화)
- 10/29(토), 총 6강
(온·오프병행)

대상 관심있는 일반시민
선착순 30명
(대면 10명, 비대면 20명)



(03035)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2-15, 2층(청운효자동 19-46)
전화 02-392-0181 | 팩스 02-392-3722 | 이메일 ccdm1984@hanmail.net